

# 중국사상의 뿌리와 인물들

--유가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 강사: 박영순(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교수)
- 일시: 2020년 09월 03일(목) 10:00-11:30
- 장소: ZOOM 강의

# 목 차

도입: 중국 사상, 문화의 일반적 특징

본론: 중국의 사상: 인물과 개념

一. 사상, 문화의 출현

二. 유가의 주요 인물과 개념

마치며: 요점 정리와 생각 키우기

## 도입: 중국 사상, 문화의 일반적 특징

### 1. 유교(儒敎)의 자의(字意)

□ 유(儒):

1) 유가의 유(유: 독서인/ 가: 학술유파-제자백가).

2) 무(巫), 사(史), 축(祝), 복(卜)에서 분화된 예의(禮儀)를 전담하던 사람. 또는 장례 일을 보던 사람.

▶ 儒 = 人 + 需

需(수: 몸에 물을 끼얹는 모습) -> 濡(유: 젖다)의 본자.

=> 예의를 주재할 때 먼저 목욕재계하던 유자(儒者)들의 신직(神職)특징을 보여준 것.

需

xū 心紐、侯部；心紐、虞韻、相俞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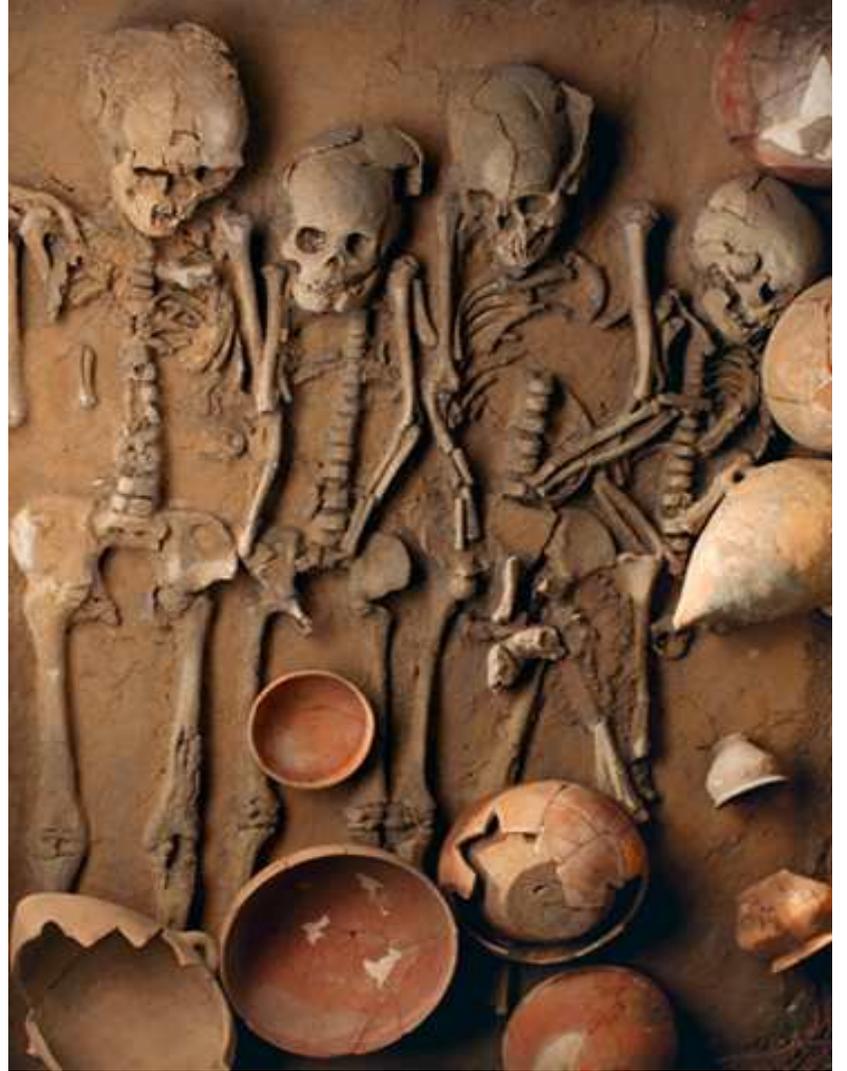
1 2 3 4 5 需  
商 西周 战国《说文》小篆 汉 楷书



新附①  
商·父辛鼎

1、2 《汉语字形表》442页。3 《古文字典》390  
页。4 《说文》242页。5 《隶辨》83页。

출처: 바이두



출처: 네이버

□ 교(敎):

- 유교의 '교'는 종교의 '교' 인가?

=>교육의 '교' = 가르침[교화]

=>성인의 가르침=>인간의 도덕적 가르침과 정치적 효과를 위한 가르침.

\*성인=선왕(先王: 요·순·문·무·주공)

- 현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심.

- 신의 세계나 사후의 세계라는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냉담.

▶ 중국은 조상숭배가 성했는데?

- 살아있는 자를 위한 현세에 집중, 조상의 영혼이 실재하는 가에 대해서는 냉담.
- 제례와 신에 대한 태도: “귀신은 공경하되 멀리하라(敬遠)”  
--『논어·옹야』
- “공자는 괴이, 힘, 패란, 귀신을 말하지 않았다.”  
“子不語怪力亂神 자불어괴력난신.” --『논어·술이』
- 경신(敬神): 제도, 의식이 지 종교는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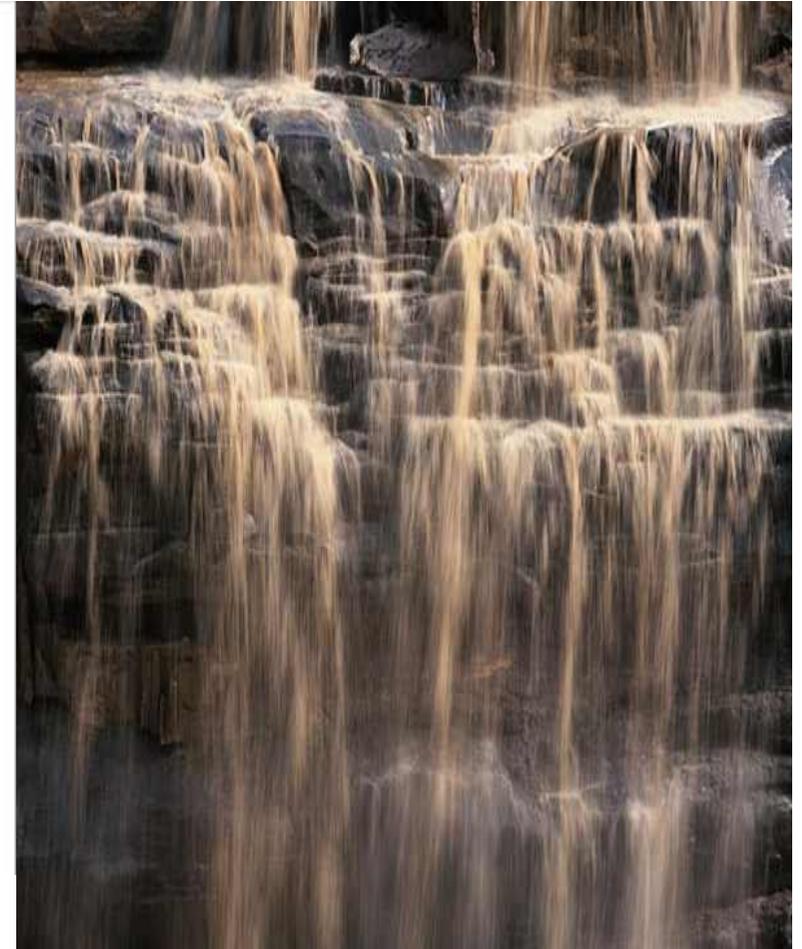
## ▶ 그럼 왜 제사?

- 제사가 가진 교육적 효과나 정치적 효과를 인정.
- “가족” 또는 “국가”의 결속과 질서 유지를 가져오는 정치적 효과 기대.
- 유교는 지배계층이 장악->정치사상, 사회윤리 강조.
- 도덕, 정치에 중심을 둔 현세에 관심, 종교 색채 적음.
- 君[군주]=敎[교화]=政[정치]: 인간을 대상으로 한 정치의 핵심은 교화.

## 2. 현세적 색채: 지리 환경과 경제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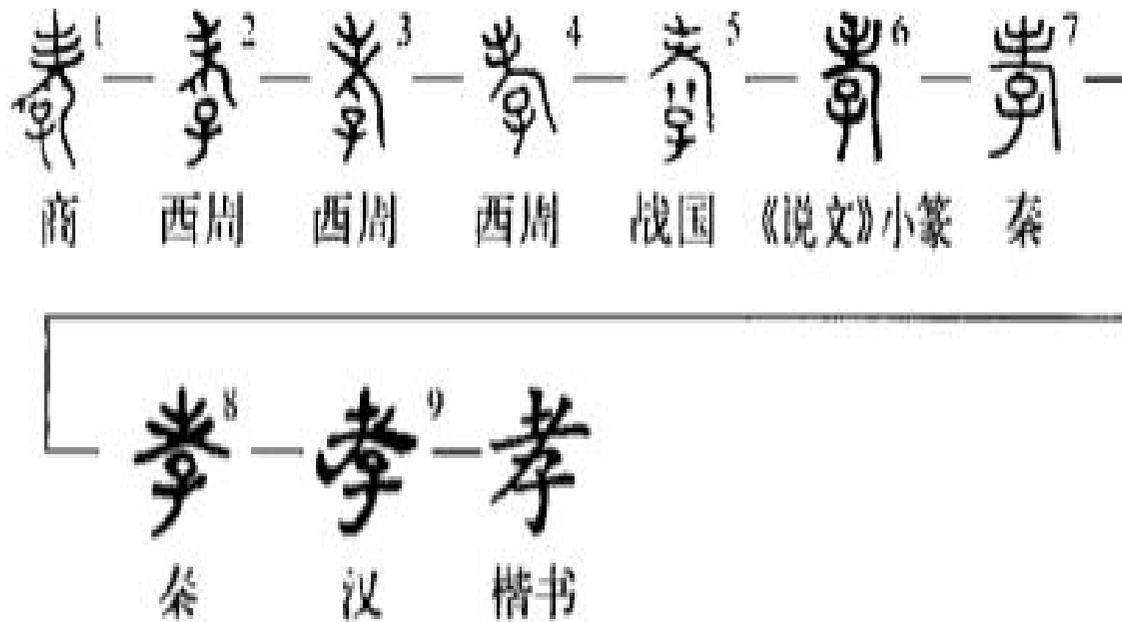
- 황하: 5,400km, 칭하이성 발원-사천-감숙-영하-내몽고-산서-섬서-하남-산둥 등 9개 성(省)과 지역->발해



출처: 네이버

- 농경문화: 치수(治水)=치국(治國)
- 황하 유역, 집약형 농업, 자연 순응=>현세, 실용, 경험 중시.
- 가족에 기초한 농업생산 체제 => 孝 중시.
- 가족과 국가의 일체화: 가족 윤리 孝->정치윤리 忠

- 孝: 아이가 노인을 부축하고 있는 모습.
- 忠: 盡心, 盡己(진심, 진기: 자신의 마음, 능력을 다하는 것)
- “가국동구(家國同構)” 관념의 형성.



출처: 바이두

### 3. 왜, 중국 사상, 문화는 정치적 색채가 강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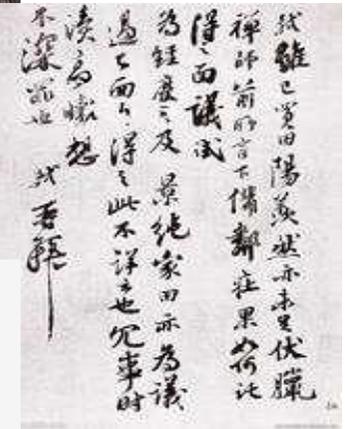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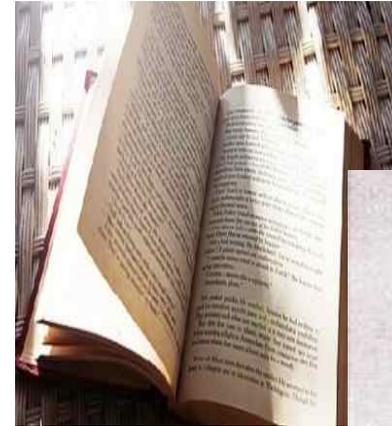
- 인물: 중국 사상, 문화를 담당했던 사대부(사인)=관리.
- 체제: 진(秦)의 등장, 봉건제 종지부, 군현제 시행. 지방관을 통한 통치, 관리에 의한 정치 체제.
- 요인: 사상, 문화를 담당한 지식계급이 관리였기 때문.

□ 중국 관리의 특수성: 관료 정치와 관리 지식인

- 관리의 선출 방식: 법률제도 지식의 유무?  
유학경전[명경과], 문학의 습득[진사과].

- 관리, 독서인, 지식인: 관리 지향형 인간,  
지식, 문화의 독점

- 통합적 지식인: 君子不器(군자불기)



# 一. 사상, 문화의 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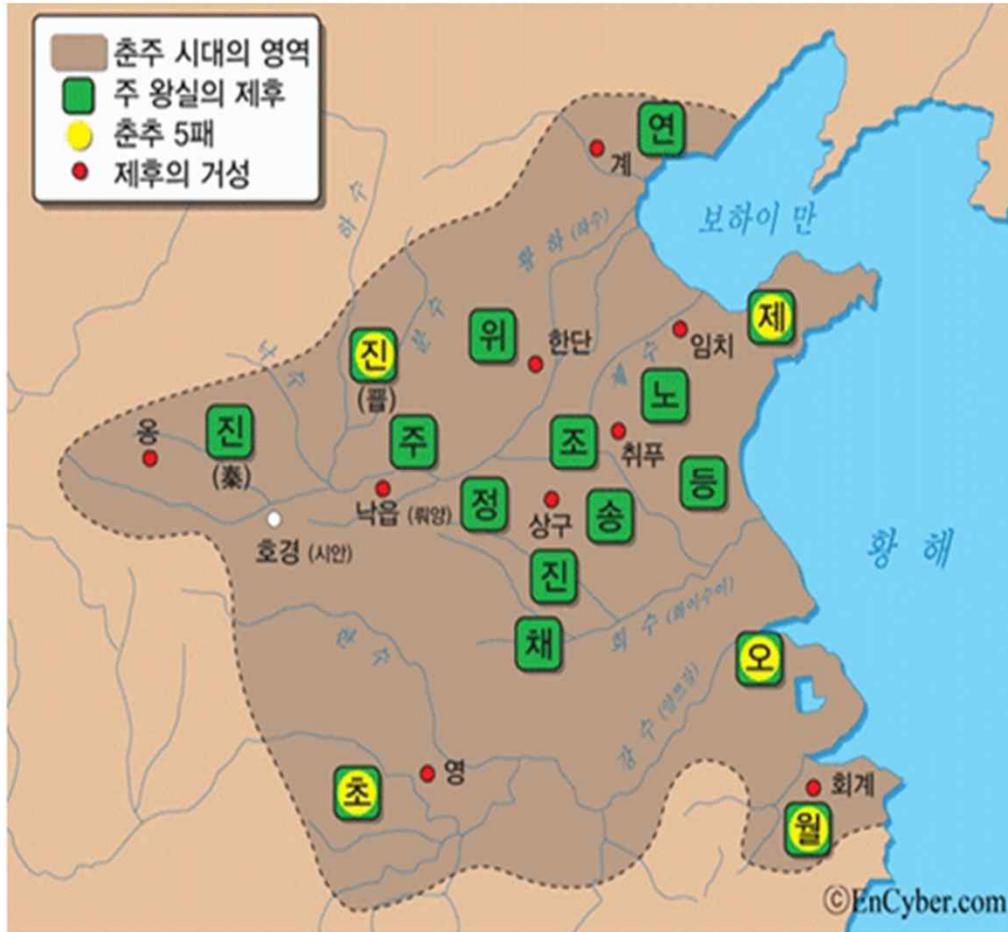
## 1. 춘추전국시대 시대적 배경

- 봉건(封建)제: 주나라의 지배 제도. 중앙에 왕실이 있고 그 일족의 자제를 각지 제후에 봉하여 다스리게 한 제도. 제후국이 천자국을 섬김.
- 봉건제 신분: "천자-제후-대부-사-(서인庶人)".
- 이성(異姓) 제후->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어 동성 의식을 갖도록 했음.
- 천하=일가(一家)=대가(大家) 라는 정신이 지배 원리로 작용.

- 춘추전국시대의 주 왕실은 천자의 권위를 가졌을 뿐, 실질적으로는 제후의 힘이 강한 군웅할거의 상태.
- 봉건제의 약점: 혈연 의식 점차 희박->내부 결속력 약화->혈연의 원리보다 힘의 원리가 차츰 지배.
- 강력한 제후는 천자를 능가, 제후국에서도 유력한 신하[대부]는 군주를 능가하게 되는 하극상의 현상 출현.
- “다 빼앗지 않고는 물리지 않는 불탈불염(不奪不厭)”  
--『맹자·양혜왕 상』

춘추시대(기원전770~기원전403)

춘추오패: 제·진·齊·오·월 / 제·진·齊·송·진 秦



전국시대(기원전403~기원전221)

전국칠웅: 진·초·연·제·조·위·한



출처: 네이버

## 2. 춘추전국시대의 분화와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출현

- 제도: 인척 관계의 느슨함->상부 계층의 분화->주 왕실 지배 체제의 붕괴.
- 경제: 철기 보급->농업생산력 증대->토지 관념의 변화, 소유 개념 형성->분화와 할거를 촉진->주 왕실의 물질 토대의 약화.
- 정치: 제후국 간의 힘의 논리가 지배, 부국강병 혈안->사회 질서, 도덕 가치의 붕괴.
- 사상: 국력 강화, 사회 질서를 회복할 사상 필요->제자백가의 등장->중국 사상 문화의 시작.

## □ 지식인 유세가(遊說家) 등장

- 전국시대의 열국 간의 경쟁 격화->봉건적 동족 제후의 경영 한계->새로운 지식인 유세객의 두뇌를 빌림.
- 주 왕실의 붕괴->왕실의 관학을 담당하던 지식인, 관리들이 민간으로 흩어져 지식인 계층 형성.
- 유세가: 한 치의 혀를 생명으로 하는 지식인 유세객.  
고대의 국가경영에 필요한 싱크탱크(think tank).

## □ 제자백가: 중국 사상의 형성

- 제자백가: 춘추전국시대에 활약한 학자와 학파. 춘추전국시대에 봉건적 사회질서 붕괴, 각국은 부국강병에 힘쓰는->제후국을 찾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사상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던 사람, 또는 그 사상.
- 백가: 여러가지 유파. 『한서(漢書)예문지』: 유가, 도가, 음양가, 법가, 명가, 묵가, 종횡가, 잡가, 농가 9가지로 분류.
- 정치적 학식을 자본으로 해서 제후의 사이에 유세했던 정치/사상 고문, 지식인 집단, 그들이 내세운 사상 및 대안.
- 유세 지식인 출현과 제자백가 사상 형성->서원 및 강학 활동 및 학파, 사상 및 당파 형성의 토대.

### 3. 제자백가의 주요 사상과 인물

기원전 770	403	221	206
춘추시대(기원전770~기원전403)	전국시대(기원전403~기원전221)	진	한
<p>공자(551-479)</p> <p>맹자(372?-289?)</p> <p>목자(470?-391?)</p> <p>순자(298?-238?)</p> <p>장자(369?-286?)</p> <p>한비자(280?-234?)</p>			

## 二. 유가의 주요 인물과 개념

### 1. 인물: 공자(B.C. 551~B.C. 479)

- 이름 구(丘), 자 중니(仲尼), 노나라 추읍(鄒邑) 사람.

#### □ 노(魯)나라 배경

- 주나라의 혈족: 주공(周公)의 장자 백금(伯禽)을 노나라에 봉함.

- 주공: 주나라 무왕의 아우, 주나라의 예악과 제도 완비. 무왕의 아들 성왕을 섭정. 사후 천자의 예악으로 제사.

- 노나라 대부(三家=三桓/환공 자식/맹손·숙손·계손)가 국정농단.

## □ 주요 일생

- 청년: 위리(委吏: 창고관리직)와 승전(乘田: 축산관리직).
- 50대: 사공(司空: 농정부문 최고 관직), 대사구(大司寇: 형벌부문 최고 관직)->중용해주는 군주를 만나지 못함->주유천하[그림].
- 60대: 공자 제자 염구(冉求)의 공으로 68세에 노나라로 돌아옴->역시 중용되지 못함->육경(六經) 정리, 제자 양성.
- 70대: 제자 안회(顔回), 자로(子路)가 죽자, 1년 뒤 73세로 별세.



출처: 바이두

## □ 공자의 이상

- 상식, 일상을 초월한 진리를 절대화하지 않음--“중용” [지나침이 없는 평범함]
- 상식의 아래에 숨어 있는 일상의 진리[도] 찾기.

“도라는 것은 삶과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으니, 떨어질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이 때문에 군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경계하고 삼가며, 들리지 않는 곳에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한다. 감추는 것보다 더 잘 보이는 것은 없으며, 작은 것보다 더 잘 나타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혼자일 때 삼가하는 것이다.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 非道也. 是故君子戒慎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 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慎其獨也. 도야자, 불가수유리야. 가리, 비도야. 시고군자계신호기소불도, 공구호기소불문. 막현어은, 막현호미, 고군자신기독야.” --『중용』

- 이상을 가까운 현실에 찾음:

"도는 가까운 데 있다. 道不遠人 도불원인" --『중용』

- 고원한 철학적 진리가 아닌 현실의 인간생활을 이끄는 올바른  
도리, 상식 중시.

- 도덕: 생활 원리로 작용하는 가족 도덕.
- 난세의 원인=힘에 의한 정치->도덕에 의한 정치 실현.
- 주나라는 혈연의식이 봉건제를 지탱하던 사회->혈연의식 희박,  
->가족주의 정신 와해->봉건제, 신분제 붕괴->힘이 작용하는  
난세.
- 난세를 구하는 길: 주나라 초기 봉건제의 정신이었던 가족도덕  
[인-효-서]을 회복하는 것. =>치국평천하의 기초.

## 1-1. 개념 읽기

### 1) 가족-사회 질서의 회복: '仁'

▲ 仁: 씨앗, 핵(核) / 두 사람이 함께 함.

○ 가족 내의 도덕: '효'로 부터 시작.

“효는 인을 행하는 근본(효, 위인지본야 孝, 爲仁之本也.)”

해석: “仁主於愛, 愛莫大於愛親. 인은 사랑을 주로 하니, 사랑은 아버이를 친히 여기는 것 보다 큰 것이 없다.”

“배우는 자는 근본에 힘쓴다(무본 務本: 本-효제).

--『논어·학이』



출처: 네이버

○ 서(恕): 타인과 사회로 확대

“나를 미루어 남에게 미친다”.

推己及人 추기급인.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己所不欲, 勿施於人 기소불욕, 물시어인. --『논어·위령공』

“극기복례 克己復禮” : 자신의 사욕(욕망)을 이기고 예(사회적 질서, 법칙)로 돌아가다. --『논어·안연』

▶ 인의 실현의 준칙: '의(義)' => 利(사욕)와 義(공익)/ 군자와 소인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군자유어의, 소인유어리).

-- 『논어·이인』

“의를 먼저하고 이익을 뒤로하다.”

先義而後利(선의이후리).

=> 공자와 맹자는 기본적으로 의와 리를 대립적으로 봄.

▶ 난세와 치세의 척도: 인의(仁義)

“만약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을까’만 생각한다면, 대부도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선비와 서민들 역시 ‘어떻게 하면 내 한 몸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게 되며, 이처럼 위아래가 다투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하면 나라는 위태로워집니다.....그러므로 왕께서는 인의를 말씀하실 뿐이지, 한사코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王曰: 何以利吾國, 大夫曰: 何以利吾家, 士庶人曰: 何以利吾身, 上下交征利而國危矣.....王亦曰仁義而已矣, 何必曰利.

왕왈: 하이리오국, 대부왈: 하이이로국, 사서인왈: 하이이로신, 상하교정리이국위의.....왕역왈인이의이이의, 하필왈리. --『맹자·양혜왕 상』

▶ 목표: '박시제중(博施濟衆)'

- 박시제중: "백성들에게 널리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한다."
- 효, 인, 서, 의의 개념을 사회 회복을 위한 토대적 개념.
- '수기치인(修己治人)' ->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치 국



제 가



수신



출처: 네이버

<유가의 주요 개념과 ‘중의경리(重義輕利)’적 가치>

가치 개념의 틀	핵심 요소	연관 개념
핵	인[효, 서]	추기급인/ 극기복례(克己復禮)
준칙	의	의와 리/ 군자와 소인
심미	화(和)	중용/ 과유불급(過猶不及)
목표	박시제중	치국평천하/ 덕치주의

## 2) 사회 법질서: '덕'과 '예' => 덕치, 예치

- 예(禮): 법, 형벌이 아닌 사회적 질서, 약속, 제도.
- 정(政: 법령)과 형(刑: 형벌)의 정치: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한 법률이나 형벌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음.
- 덕(德: 인간의 도덕적 감화)과 예(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약속)의 정치.

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이무치; 도지이덕, 제지이례, 유치차격.

“백성을 정치적 법령이나 형벌로써 다스리면, 백성들은 (형벌에서는) 면하겠지만 (잘못에 대한 근본적인) 부끄러워함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백성을 덕과 예로써 이끌어나가면 (백성들은) 부끄러워함도 있고 또 (선한 데로)이를 것이다. --『논어·위정』

## ▶ 예치의 함의

- 예는 법에 미치지 못하지만 덕보다는 강함.
- 구속력의 강도: 법->예->덕
- 예를 넘은 행위가 봉건적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극상의 초래.
- 예치: 신분질서를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
- 유교는 기존 질서의 보수에 적합한 사상->유교를 정책 원리로 삼으면서 체제 옹호사상으로 유지하려는 것은 자연적인 추세.

### 3) 삶은 곧 배움

#### ▲ 학(學)의 의미

-행(行): 행실, 덕행 --> 위기지학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배우는 젊은이]들은 들어오면 효도하고 나가면 공경하며, 행동은 삼가고 말은 미덥게 하며, 널리 많은 사람을 사랑하되 어진 이를 가까이해야 한다. 이를 행하고 여력[여가, 남은 시간]이 있으면 글을 배워라. 子曰: “弟子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 자왈: 제자입즉효, 출즉제, 근이신, 범애중이친인. 행유여력, 즉이학문.”  
--『논어·학이』

-지(知): 문(文: 글, 기예) --> 위인지학

-글[文]->육경(六經): 시·서·예·악·역·춘추

-기예[藝]->육예(六藝): 예(禮: 예용)·악(樂: 음악)·사(射: 활쏘기)·어(御: 말물기)·서(書: 서예)·수(數: 수학)

## 예) 인간상

“군자는 그릇(기물)이 아니다.” 君子不器 군자불기 -- 『논어·위정』

- 기(器): 그릇, 기물. 그릇의 용도가 정해졌음->하나의 기예(기능)에 국한된 전문적 기능만을 가진 인재.
- 군자는 학식과 덕망을 두루 갖추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어야지, 그릇, 기물처럼 한 가지의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
- 미래:인문학과 과학을 넘나드는 경계가 없는 통합적, 융합적 인간?

▲ “나”를 위한 배움: 위기지학(爲己之學)과 위인지학(爲人之學)

“옛날의 배우는 자들은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하였는데, 지금의 사람들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를 한다.

古之學者爲己, 今之學者爲人. 고지학자위기, 금지학자위인.”

--『논어·헌문』

▲ “성찰” --三省(삼성)

증자가 말했다: 나는 날마다 세 가지로 내 몸을 살핀다. 남을 위해 일을 꾀하면서 진심을 다했는가? 벗과 사귀에 참되게 신실하였는가? 배운 바를 제대로 익혔는가?

曾子曰: “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

증자왈: “오일삼성오신, 위인모이불충호, 여붕우교이불신호, 전불습호?”

--『논어·학이』

## ▲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

孟子曰: 仁, 人心也; 義, 人路也. 舍其路而不由, 放其心而不知求, 哀哉!  
人有鷄犬放則知求之; 有放心而不知求. 學問之道無他, 求其放心而已矣.  
(맹자왈: 인, 인심야; 의, 인로야. 사기로이불유, 방기심이부지구, 애재!  
인유계견방즉지구지; 유방심이부지구! 학문지도무타, 구기방심이이의)

“인은 사람의 마음이요. 의는 사람의 길이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며, 그 마음을 잃고도 찾을 줄 모르니, 안타깝다! 기르던 닭이나 개가 달아나면 그것을 찾을 줄을 알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고도 찾을 줄을 모른다. 배움의 길은 다른 게 없다.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 -- 『맹자·고자 상』

## <생각해 보기>

- 군자불기: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전문적 인간? 통합적 인간?
- 노불습유(路不拾遺: 땅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는다)의 본 마음은?
- "위기지학": 보여주기 삶?
- "삼성": 무엇으로 나의 하루를 성찰?  
--나를 잘 들여다보아야 남이 보임.
- "마음 찾기": 무엇을 잃어버렸나? 어떻게 찾고 있는가?

## 2. 인물: 맹자(B.C. 372~B.C. 289)

### 2-1 개념 읽기

1) 정치론: 여민(與民), 민귀(民貴) --왕도정치

2) 경제론: 항산(恒産), 정전(井田) --민생정치

3) 심성론: 성선(性善), 사단(四端) --양심회복

## 1) 정치론: 여민(與民), 민귀(民貴)

### □ 여민(與民) -- 공동의 나눔

“군주가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 한다면, 백성들 또한 군주가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군주가 백성들이 걱정하는 것을 걱정한다면, 백성들 또한 군주가 걱정하는 것을 걱정합니다. 즐거움을 천하와 더불어 하고, 근심을 천하와 더불어 하고서도 왕 노릇하지 못한 자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樂民之樂者, 民亦樂其樂. 憂民之憂者, 民亦憂其憂. 樂以天下, 憂以天下, 然而不王者, 未之有也. 락민지락자, 민역락기락. 우민지우자, 민역구기우. 락이천하, 연이불왕자, 미지유야.” --『맹자·양혜왕 하』

□ 민귀(民貴) -- 민본의 씨

“백성들이 가장 귀한 존재다.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장 가벼운 존재다.”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

--『맹자·진심 하』

- 혁명의 씨: “변치사직(變置社稷: 사직을 바꾸다 - 새로운 정권 수립)”

--『맹자·양혜왕 하』

- 군주는 지식의 권력과 정치의 권력을 동시에 장악.

- 군주는 국가경영자, 관리 위탁자->천하, 국가는 소유나 사유물이 아님.

## 2) 경제론: 항산(恒産), 정전(井田)

□ 항산(恒産: 일정한 생업)->항심(恒心: 항상 지니는 선한 양심)

“생활이 안정되지 않아도 항상된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뜻있는 선비만 가능한 일입니다. 백성은 경제적 안정이 없으면 항상된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밝은 군주는 백성들의 생업을 제정하되, 위로는 부모를 섬길 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기르고 먹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백성들을 인도하여 선으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잘 따를 것입니다. 無恒産而有恒心者, 惟士爲能. 若民則無恒産, 因無恒心. 무항산이유항심자, 유사위능. 약민즉무항산, 인무항심. ...(생략)” --『맹자·등문공 상』

- 항산->항심->교육

- “군자삼락(君子三樂)”: 부모형제 무탈-부끄럼 없는 삶-후세 교육

□ 정전제: 어떻게 일정한 재산을 줄 것인가?

井田法 정전법



- 정전: 토지를 '정(井)'자 모양으로 9등분, 주위의 8구획은 8호(戶)의 집에서 각각 사전(私田)으로서 경작, 중심의 1구획은 공전(公田)으로 삼아 8호가 공동 경작하여 세금으로 충당.

## <생각해 보기>

- '여민(與民) - 백성과 더불어', '위민(爲民)' - 백성을 위하여
- '여'의 주체는 군주와 백성. 평등적/수평적 실천 개념.
- '위'의 주체는 군주-시혜자, 백성-수혜자. 상하 시수(施受) 개념.
- 주체로서의 참여?: 모든 것은 인민을 위해 행해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 민본의 '본'?: '민중을 위한 정치'를 강조하지만 '민중에 의한 정치'?

### 3) 심성론: 성선(性善), 사단(四端)

- 측은(惻隱)·수오(羞惡)·사양(辭讓)·시비(是非)의 4가지 품성[마음=사단]을 가지고 태어남=인간의 사지=>인(仁)·의(義)·예(禮)·지(智) 4가지 덕으로 완성.
- 선함의 자연발생설: 선한 본성->후천적 환경에 의해 변함.
- 인간은 본능적으로 선하게 될[선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본성은 선한 것이라고 봄.

<우물로 기어가는 아이를 볼 때: 不忍之心불인지심> <소를 양으로 바꿀까요?: 以羊易牛이양역우=保民보민>



출처: 네이버

## <생각해 보기>

- 인간의 본성은 선한데, 외부의 환경에 의해 악에 빠진다고 한다면, 결국 인간에게는 본디 악으로 향하는 성질이 있는 건 아닐까?
- 맹자는 왜 성선설을 제창할 필요를 느꼈을까?
  - 덕은 '강제력'은 없고 예는 일부 '구속력'을 가졌음, 그러나 형벌이 따르지 않으므로 그 구속력(힘, 처벌)은 약함.
  -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한다면 덕, 예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법만이 유력한 수단이 됨.
  - 덕치, 예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이 선해야 한다는 논리적 연관이 성립되어야 함.

### 3. 인물: 순자(B.C. 300~B.B.255)

#### 3-1 개념 읽기

##### □ 예치->법치

- 예는 사회적 '습속' '규범', 도덕[덕]과는 달리 인간을 외부에서 구속하는 힘.
- 공자, 맹자는 예보다 덕에 치중, 순자는 예에 보다 치중.
- 자발적인 도덕심에 호소하여 다스리기는 어려움, 일정 정도 강제력을 가진 정치 원리가 필요.
- 강제력이란 점에서 볼 때, 예는 법에 미칠 수 없음. 법의 위반은 형벌이 가해지지만, 예의 위반은 사회적인 비난[염치]을 수반.

- 맹자: 예는 인간이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천성에서 비롯된다는 입장[인의예지, 사단]
- 순자: 예는 군주의 자각적인 판단에 의한 인위에서 생긴다고 봄.
- 맹자: 선왕(先王: 성인의 절대적인 권위)의 도덕에 의한 정치 주장.
- 순자: 후왕(後王: 군주중심의 인위적 정치)->한비자 등 법가사상으로 기움.

## □ 의와 리

- '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맹자와 기본적으로 유사->단, 대립적 시각 보다 본능적 속성으로 인식.
- 의와 리는 고유적으로 가진 속성->'이익'을 숭상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의 표현/ '성악'의 표현 가운데 하나.

“의와 리는 사람들이 둘 다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다. 비록 요순일지라도 백성들의 이익을 제거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의를 좋아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게 할 수 있다.

義與利者, 人之所兩有也. 雖堯舜不能去民之欲利. 然而能使其欲利不克其好義也. 의여리자, 인지소양유야. 소요순불능거민지욕리. 연이능사기욕리불극기호의야.” --『순자·대략(大略)』

## □ 성악

- 맹자: "사람의 성은 선하지만,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그 본성을 잃고 그 결과로서 악하게 되는 것."
- 순자: 후천적 환경에 의해 변한다는 것은 잠재적 악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
- 순자: 자연 그대로의 인간은 무한한 욕망을 지닌 존재->인간에게는 본디 악으로 향하는 성질이 있음을 파악->인간의 본성은 악함이 있음을 인정.
- 순자: 악의 욕망을 지닌 인간을 착하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인위에 의한 조절이 필요.

## ▲ 순자의 소결: 예, 의와 리, 성악

- 사회 질서를 위해서는 인간의 행위를 제도, 규범의 틀로 제한-> 군주(후왕)에 의한 '인위적 예치'.
-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는 수단이 필요-> 법가 사상으로 계승(한비자, 상앙)
- 인간 본성에 욕망이 작동함을 인정하는 성악설이 등장.
- 유가의 정치 패턴: 덕치->예치->법치  
공, 맹: 덕->예/ 순자: 예치->법치/ 법치: 한비자, 상앙

## 마치며1: 요점 정리

### □ 제자백가 출현의 시대적 배경

- 봉건제도의 약점: 혈연 의식 점차 희박->내부 결속력 약화->주 왕실 지배체제의 붕괴.
- 철기 보급->농업생산력 증대->토지 관념의 변화->분화와 할거 촉진->주 왕실의 물적 토대의 약화.
- 제후국 간의 힘의 논리 지배->사회 질서, 도덕 가치의 붕괴->국력 강화, 사회 가치를 회복할 인재와 사상이 필요->제자백가 등장->중국 사상 문화의 시작.

### □ 유가의 인물과 개념: '심성' - '정치' => '수신' - '치국'

- 공자: 인, 효, 충(忠), 서(恕), 리(利), 의(義), 덕, 예, 박시제중(博施濟衆), 수기치인(修己治人), 삼성(三省), 위기지학(爲己之學)과 위인지학(爲人之學).
- 맹자: 여민(與民), 민귀(民貴), 항산(恒産), 항심(恒心), 정전(井田), 성선, 사단(四端).
- 순자: 예치(禮治), 의와 리, 후왕(後王), 성악.

### □ 유가의 정치 패턴: 덕치->예치->법치

- 공, 맹: 덕->예/순자: 예치->법치/ 법치: 한비자, 상앙

\* 본문 속 원문 읽어보기

## 마치며2: 생각해 보기

□ 생각해보기: 본문에서 제시

□ 무엇을 얻었는가?

- 어떤 개념이 본인의 삶과 연결되는지? 어떻게 이해/수용/비판?
- 어떤 개념이 현 시대의 현상과 연결되는지? 어떻게 이해/비판?

□ 왜, 옛 글을 읽는가?

- 나의 마음을 찾기 위해: “아사고인, 실획아심(我思古人, 實獲我心)”
- 지평의 융합: 과거의 지평과 그것을 읽는 현대인의 지평의 융합. 과거의 특정 사상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관점에서 다시 살아 숨쉬는 것들을 느끼고 공감하는 것.

**수고하셨습니다!!**

## <참고문헌>

- 모리 미키사부로 저·임병덕 역, 『중국사상사』, 온누리, 2011.
- 김교빈 등, 『유학, 시대와 통하다』, 자음과 모음, 2012.
- 『논어』, 『맹자』, 『순자』 관련 서적.

<그림 출처>: 네이버, 바이두(百度)